

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4. 4. 29.(월)

한국-캐나다, 11월 부산에서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 성안을 위해 적극 공조기로 약속

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제4차 정부간협상위원회(INC*-4)에 참석중인 김효은 기후변화대사는 4.26(금) 스티븐 길보(Steven Guilbeault) 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 장관과 양자 협의를 개최, 11월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제5차 INC에서 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이 반드시 성안될 수 있도록 양국이 적극 공조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.

*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to develop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on plastic pollution, including in the marine environment

※ 협약 추진 배경 : 2022.2.28.-3.2 제5차 유엔환경총회(UNEA 5.2)에서 국제협약 성안 추진 결의를 채택, 총 5차례의 '정부간협상위원회(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, INC) 회의를 통해 '24년까지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 성안을 목표로 설정

김 대사가 INC-4 에서의 협상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, 부산에서 협약안에 대한 최종 합의가 도출될 수 있겠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자, 길보 장관은 회의 초반에 장관급 라운드테이블을 포함,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한 것이 협상 분위기를 건설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강조하고, INC-4에서 최대한 협상을 진전시켜 11월 부산회의*에서는 반드시 협약안이 성안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하였다.

김 대사와 길보 장관은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이 완성되면 이는 지구 환경 뿐만 아니라 경제, 산업,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, 국제사회의 관심과 기대도 급증하는

만큼 11월 부산 회의를 글로벌 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로 만들자고 강조하였다.

* 2024.11.25.-12.1. 개최 예정

현재 INC-4에서는 INC-3 회의 결과에 따라 유엔환경계획(UNEP) INC 사무국이 준비한 협약 수정초안(revised draft text)을 바탕으로 문안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.

붙임 : 면담 사진. 끝.

담당 부서	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녹색환경외교과	책임자	과 장	정경화 (02-2100-7794)
		담당자	사무관	김도훈 (02-2100-7789)